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18호 / 03월 19일

溫家宝 신임총리 기자회견, 신정부 국정운영 방향 제시

1. 개요

- 중국 제10기 全人大 제1차 회의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된 원자바오(溫家寶) 총리가 전인대 폐막일인 2003년 3월 18일 인민대회당에서 내·외신 기자들과 회견을 갖고,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힘.
- 원자바오 신임 총리는 4대 국정운영 목표로서 ① 지속적인 고속성장과 인민생활 수준 향상, ② 경제구조조정 가속화와 대외개방 확대, ③ 취업, 재정건전화, 시장경제질서 정비 등 경제현안 해결, ④ 지속적인 개혁 추진 등을 제시하고,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조함.
- 전임 朱鎔基 총리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는 중국의 개혁, 발전 및 안정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, 신정부의 당면 과제로서 ① 농업발전 및 농민소득 제고, ② 현대적인 기업제도 구축, ③ 실업자 재취업 및 사회보장제도 구축, ④ 도·농간 및 동·서부간 격차 해소, ⑤ 재정건전화 및 은행부실채권 처리 등을 지적함.
- 이 밖에도 ▲중국의 정치개혁 및 부패, ▲홍콩경제의 과제 및 兩岸관계, ▲사영기업, ▲인민폐환율, ▲중동문제 등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힘.

2. 기자회견 주요 내용

□ 신정부의 당면 현안

- 지난 5년간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바, 현재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으로는 ▲농업부문 낙후 및 농민소득의 상대적 저하, ▲ 현대적인 기업제도 구축, ▲정리해고자와 실업률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 압력, ▲도·농간 및 동·서부간 격차와 빈곤지역 문제, ▲제정부담 가중과 높은 비율의 은행부실채권 등임.

□ 신정부의 4大 국정운영 목표

- 지속적인 고속성장 및 인민생활 수준 향상
 -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함. 이를 위해 정책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, 내수확대 방침과 확대재정정책을 견지해야 함.
- 전략적인 경제구조조정 및 대외개방의 지속적인 확대
- 취업난 해소와 사회보장제도 확립, 재정수입 증가와 지출절감, 시장경제질서 정비 등 3大 경제현안의 해결
- 4大 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
 - 농촌개혁: 조세 및 준조세, 식량유통체제, 농민지원 방식, 농촌금융, 농촌의료제도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
 - 기업개혁: 경제체제개혁의 핵심으로, 현대적인 기업제도 구축과 함께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을 가속화
 - 금융개혁: 금융감독관리제도 완비, 현대적인 금융기업제도 구축
 - 정부기구개혁: 정부기능의 전환

□ 정치체제개혁의 심화 및 부패 척결 문제

-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은 “사회주의는 무엇이며, 사회주의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”의 문제와 “어떠한 당을 어떻게 건설하는가”에 관한 논의를 근간으로 해서 진행될 것임.
- 신정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임.
 - 첫째,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과학적·민주적인 의사결정메커니즘 구축
 - 둘째, 정부기관 및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동시에 그것의 제약과 규제를 받아야 함.
 - 셋째, 인민대표대회와 정부감독 기능을 적극 수용하고, 동시에 정치협상회의 및 여론의 감독을 받아야 함.
- 부패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바, 新정부는 ▲공무원 기강 강화, ▲공무원 범죄행위 엄벌, ▲관리·행정심사·자금관리·인사제도 개혁 등 정부기구개혁 촉진, ▲對정부 감독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부패단속을 강화할 것임.

□ 홍콩경제의 과제

- 현재 홍콩경제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한 높은 실업률,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. 그러나 견실한 경제 기초와 높은 저축률, 완비된 법제, 지리적 우세와 우수한 인력, 그리고 대내외 채무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.
- 중국 중앙정부는 일관되게 홍콩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것이며, 현재 대륙과 홍콩간의 경제·무역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준비중임.

□ 사영기업에 대한 지지 및 장려

- 중국정부는 개인 및 사영기업 등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지지하고 장려하는바,

이는 취업확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.

- 중국정부는 개인 및 사영기업에 대해 시장진입 허용, 조세, 대출 및 수출입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할 것임.

□ 인민폐 환율제도

-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환율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임.
- 1994년의 환율단일화 이래 인민폐 환율은 불변 상태를 유지해온 것이 아니라 美달러화와 유로화에 대한 환율이 각각 18%와 34% 평가절상되었음. 인민폐의 강세와 안정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경제에 유리함.

□ 4大 국유상업은행의 경쟁력 제고 문제

- 지난 수년간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4大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여전히 21.4%(4단계 분류기준, 국제기준인 5단계 분류기준에 따르면 25% 내외)에 달함.
- 국유상업은행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, 부실채권 처리 등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바, 중국정부는 이미 지난 5년간 2,700억 元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은행자본금을 보충하고 1조 4,000억 元의 부실채권을 처리함.
- 그러나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현대적인 경영시스템과 금융기업제도의 구축, 주식제 실시 등 강도 높은 개혁에 있음.

□ 兩岸관계

- 중국정부는 평화통일과 一國兩制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이행할 것이며 대만의

독립을 반대함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양안간의 경제·문화적 교류 확대와 3통(통항·통신·통상) 실현 등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임.

□ 중동문제

- 이라크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은 UN 체제하에서의 정치적,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, 이라크정부의 협조하에 지속적인 사찰활동을 전개하여 대규모 살상무기를 철저히 제거할 것을 강조해 왔음.
- o 현재 미-이라크전쟁의 발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치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.

-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분쟁문제는 국제적인 협조와 UN의 관련 원칙에 의거하여 정치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.(***)